더민주 당적 김제시 의원11명 탈당 총선 변수

국민의당 입당 선언… "현역의원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당 결정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 지지 기초의원들 탈당이 제20대 총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의장을 비롯한 김제시의원 11명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제시의회는 14명 의원 중 비례 2명,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11명 모두가 더민주당 당적이다.

이들 탈당 의원들은 제20대 단수공천이 김제에 경쟁력있는 현역의원이 있었음에도 기회를 박탈, 객관성에서 벗어났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결코 용인 할 수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비대위가 들어서자 김제시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꺾어 버리는 토사구팽을 감행했다. 김제시민을 우롱하고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빼앗은 정당에게 김제의 미래를 맡길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탈당을 결심했다"며 더민주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김제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더민주당에게 짓밟힌 시민들의 자존감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게 탈당한 의원들의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민주 도당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을 의식한 듯, "최규성 의원과는 무관한 결정이다. 최 의원과 연계시키지 말라. 시민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김제부안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와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의 양자 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의 탈당은 김춘진 후보의 4선 도전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게 됐다.

박빙을 보였던 만큼 이들 기초의원들의 탈당은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춘진 후보의 표를 상당수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는 기회가 됐다. 김제시 19세 이상 유권자는 7만6,246명으로 부안군 4만8,891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정치가 현역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입당은 득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정가는 이번 탈당을 두고 더민주당에게 공천 후유증으로 볼수 있으며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탈락 후보들의 '정당 결정수용과 지지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풀이했다.

특히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면서 지방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도 일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에 기반을 둔 김춘진 후보 보다는 김제 토박이인 김종회 후보를 선택하는게 앞으로 정치행보에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별 취재반

새누리, 후보 확정 총선 체제 전환

새누리당은 2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모두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동선대위원장 5명 등 선대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공동 위원장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이인제 최고위원 등 5명이 맡았다.

12개 권역별로도 선대위원장직을 만들어 최경환(대구·경북권), 김태호(부산·경남권), 김정훈(부산·경남권), 김을동(서울권), 안대희(서울권), 이정현(호남·제주권), 황우여(인천권), 정갑윤(울산권), 정병국(경기권), 이주영(경남권), 정우택(충북권), 김기선(강원권)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총괄본부장은 황진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사무총장으로 의결했다.

또 강석훈 의원과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을 공동 정책실장으로 결정했다.

선대위 대변인은 이상일 의원과 안형환 전 의원으로 의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공천확정자 248명을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대변인 중 여성 대변인이 없어서 여성 대변인은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성주 기자

도내 총선 · 익산시장재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일정 확정

4.13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TV토론회 일정이 확정됐다.

28일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익산시장재선거의 '후보자 TV토론회'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최한다.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TV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선거기간개시일인 31일부터 사전투표기간전인 4월 7일까지를 '후보자 TV토론 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를 공영방송사인 KBS전주와 전주MBC에서 중계방송하게 된다. 각 선거구별 TV토론 중계방송 일정은 ▲3월 31일 전주시병(KBS전주 오전 10시) ▲4월 1일 전주시갑(전주MBC 오전 9시45분) ▲1일 익산시을(KBS전주 오전 10시) ▲4일 전주시을(전주MBC 오전 9시45분) ▲4일 익산시갑(KBS전주 오후 2시) ▲5일 완주·진안·무주·장수(KBS전주 오전 10시) ▲5일 정읍·고창(전주MBC 오전 9시45분) ▲6일 군산시(전주MBC 오전 9시45분) ▲6일 남원·임실·순창(KBS전주 오전 10시) ▲김제·부안(전주MBC 오전 9시45분) ▲7일 익산시장재선거(KBS전주 오후 2시).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TV토론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뿐만 아니라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 취재반

MBC전주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가져

전주 MBC가 28일 마련한 '4·13 총선-전북 전주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전주병)는 정동영 후보(전주병)에게 물었다.

질문 발단은 김성주 후보가 "의정 활동 4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정동영 후보는 "탄소산업 발전과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등 열심히 잘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잘했다면서 열심히 일한 후배를 왜 떨어뜨리려고 하시느냐, 좀 도와주지 그러냐"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후보는 "나중에 답변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자의 제지에 대답을 듣지 못했다. 방송이 끝난 뒤 정 후보는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키워준 고향에서 다시 출마하는 것일 뿐이다"고 대답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전북에 있었으면 김 후보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19대 총선 당시 친노세력이 강남 출마를 강요했고 부산 출마를 선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강남 출마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신건, 조배숙, 강봉균 당시 의원들 역시 피해자였다. 이런 친노 세력은 제거 되어야 된다. 지금은 지역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지역대표, 전북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 의장을 오래 한 토마스 오닐은 '모든 정치는 로컬'이라고 했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전북에서 만들어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특별 취재반

최행식 익산시장 후보, 자원봉사 민생행보 나서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익산시장, 사진)은 서민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연일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최근 최 후보는 미륵산 등지를 방문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익산지역 회원들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배산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 배식 행사에 참가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거들면서 근원적인 노인 정책을 위한 의견청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왔다.

최 후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생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저의 진정성을 믿고 4·13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김윤태 후보, 블로그 방문객 늘어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국회의원 후보(군산) 블로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후보의 블로그 'withyuntae.blog.me'를 찾은 네티즌 수는 지난 21일 개통 뒤 일주일간 모두 5,502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둔 24일에는 방문이 폭증해, 이날 하루동안만 블로그를 찾은 '폴리티즌'은 3,04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 일주일간 페이지뷰 수는 7,797개로 집계됐다.

방문 폴리티즌 1인 평균 페이지 구독 수는 1.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후보의 블로그에는 출마의 변, 공약, 동정 외에 저서, 논문, 칼럼이 업데이트 돼 있다.

김윤태 후보는 "블로그를 찾아주신 네티즌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의 단 소리 쓴 소리 모두 귀담아 들어 소통하는 모바일 민주주의로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김윤덕 후보, 지역 대표 · 국정공약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후보가 28일 지역 대표공약과 국정공약 등 5대 공약 발표를 통해 전주 발전 청사진을 담고 더불어 잘사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김윤덕 후보는 지역 대표공약으로 '전라감영 복원 본격 추진'과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호남제일성 전주의 자긍심이자 전주의 위상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라감영을 복원해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고 전주의 맛을 관광상품화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한식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한식 대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 공약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라며 '경제민주화로 살맛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공약은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이 민생경제에 흐르도록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단행하고 부자 감세 철회로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후보 SNS 릴레이 이색 응원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완·진·무·장, 사진)는 28일 SNS를 이용한 이색적인 릴레이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측에 따르면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과 그 문하생들은 "국민의당 기호 3번 임정엽 완진무장 국회의원 후보님을 응원합니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찍은 응원영상을 보냈다.

또한 임 후보측은 "젊은 청년들의 지지가 잇따라 완주군중앙도서관, 로컬푸드 매장, 삼례문화예술촌 등에서 20대 청년들의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는 "젊은 청년들이 지지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SNS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니 더욱 힘이 난다"며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무한애정과 적극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김용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새누리당 김용호 국회의원 후보(남원 임실 순창)는 28일 오후 2시 남원시청 앞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핵심당직자, 당원, 지지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답하라 젊은 그대! 임순남을 변호하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용호 후보는 "8년 전 물 좋고 인심 좋은 남원에 내려와 남원이 좋아서 살고 있다"면서"남원은 제 마음의 고향이자 우리 아들딸들의 고향이다. 앞으로 남원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는, 젊고 참신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어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김항술 전북도당위원장과 양창식 전 국회의원, 서세일 전북도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특별취재반

강동원 후보,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 후보(남원·임실·순창)는 28일, 총선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는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세종시 국회분원 검토'보다는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민원인들이 급하게 챙겨할 서류나 협의, 상담, 결제는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행정부만 내려간 세종시는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강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다. DJ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국회 지방이전에 적극 찬성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 지방이전에 공감한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4.13 선거 RUN · RUN · RUN

정운천 후보, 전북 5대 비전 전주 8대 핵심 공약 발표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전북 5대비전-전주 8대핵심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28일 도의회브리핑룸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유치 통한 5만 좋은 일자리 창출 ▲전북 1조원 사회적 기업펀드 설립 ▲기금운용본부 안착 ▲새만금개발 ▲전주완주통합 추진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전주발전을 위해서는 ▲삼천천 생태경관조성 사업 ▲'교육도시 전주' 명성 회복 ▲효자동 경노종합복지타운(500억) 건립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150억) ▲의료인프라 확충 ▲민생 119 접수 민원 ▲용리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 ▲전주 제2외곽도로(800억) 조기 건설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8대 핵심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정운천 후보는 "전주와 전북은 30년 지역정치의 장벽을 걷어내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확보해 낙후된 전주와 전북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최형재 후보, "불효자 방지법 제정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국회의원 후보(전주을)는 28일 전주시 노인회 이사회를 방문했다.

최 후보는"선거때만 되면 선심쓰듯 남발하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을 2018년부터 차등없이 지급할것과 부모학대시 증여재산 환수를 기본으로 하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더이상 표를 위해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한다."며"4.13총선에서 약속을 밥먹듯 어기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정동영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촉구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후보(전주병)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적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28일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전주 아파트 분양가가 3.3m²당 800만원, 1,000만원은 비정상"이라며 "에코시티의 경우 택지조성비 100만원에 건축비 400만원, 업체 이윤 포함해도 6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서울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을 900만원에 분양했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주 35사단 부지 60여만 평에 1만3,000여 세대를 건설할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는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 땅값이 비교적 낮은 전주에서 분양가가 8백만 원대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취재반

박종길 후보, "익산 스포츠 관광 특구 지정"

오는 4.13 총선 익산을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박종길 국회의원 후보가 "스포츠 관광산업 특구와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MICE)마이스 산업의 기회를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호1번 박종길 후보는 "지난 28일 오전11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익산시는 지정학적으로 교통물류와 관광인프라가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지금껏 관광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길 후보는 "오는 2018년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익산 발전의 초석을 만들자고 했으"며, "우선 스포츠관광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침체된 익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포츠 관련 산업과 의류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R&D연구센터 설립과 ICT 기술연구소 , 기능성게임 개발 등 미래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대회 등 스포츠관련 대회를 유치하여 익산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종길 후보는 이번 4.13총선에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익산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침체된 익산경제를 살리는데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